

WMC 기도학교 시리즈 4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How You should pray.

제 3 권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하시는 예수님

김정복 목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3권)”를 발간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적 기도”
성경에 나타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아버지께 상달되는 기도
아버지의 뜻에 합(合)한 기도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 기도”를
감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줄 압니다.
많은 기도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6. 20.
부족한 주의 종 목사 김정복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3)

How You should pray.



목 차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3)

제 1 강의 성경적 기도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제1권)

제 2 강의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

제 3 강의 그런즉 내개로 돌아오라(Return to God)

제 4 강의 예수님의 삶을 통한 기도교육

제 5 강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교육 (제2권)

제 6 강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제3권) | 6

성경적 기도의 정의 | 7

1. 기도는 사랑의 관계이다 | 7

2.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 9

3. 기도는 영혼의 갈망이다 | 10

4.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이며 권리이다 | 11

5. 기도는 이웃을 위한 최선의 사랑의 통로이다 | 12

6.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다 | 13

7. 기도는 영적 투쟁이다 | 15

8. 기도는 신령한 헌신이다 | 17

9. 기도는 경건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이다 | 18

10.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최선의 길이다 | 19

제 7 강의 기도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 20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순서와 내용 | 20

1. 먼저 기도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 | 20

2.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 21

 1) 회개(Confession) | 21

 2) 찬양(Adoration) | 24

 3) 감사(Thanksgiving) | 25

 4) 간구(Supplication) | 29

 5) 도고(Intercession) | 30

 6) 기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 31

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다 | 32

4. 아멘으로 끝맺는다. | 32

제 8 강의 예수님의 중보기도 | 33

1. 중보기도(Mediator's prayer)란 어떤 기도인가? | 33
2. 성도가 중보기도(Mediator's prayer)를 할 수 있나? | 35

제 9 강의 보혜사 성령님과 성령 충만 | 37

1. 성령님은 누구신가? | 37
2. 성령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나? | 38
3. 성령님의 중보기도 | 40
4.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가? | 40

제10 강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는가? | 44

1. 기도의 상달과 응답 | 44
2. 하나님께 상달하지 않는 기도 | 45
3.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 46
 - 1) 긍정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
 - 2) 부정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

제11 강의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 49

그리스도인과 기도 | 49

1.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敬畏)하는 사람이다 | 51
2. 기도의 사람은 유순(柔順)한 사람이다 | 55
3. 기도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 | 56
4. 기도의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다 | 61
5. 기도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다 | 64
6.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 67
7.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 70
8. 기도의 사람은 발에서 신을 벗은 사람이다 | 74
9.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이다 | 76
10. 기도의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 80

제12 강의 주기도 강해 (제4권)

성경적 기도의 정의

- 1) 성경적 회개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헐리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통로이다.
- 2) 성경적 기도는 사탄의 시험과 악을 막고 이기게 하는 성령의 검이며 방패이다.
- 3) 성경적 기도는 성도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지름길이다.

1. 기도는 사랑의 관계이다

- 1)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다.
- 2) 기도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다.
- 3) 기도는 성령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다.
- 4) 기도는 성도의 사랑의 관계이다.

2.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 1)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셨다.
- 2) 예수님께서 먼저 초청하셨다.
- 3) 성령님께서 먼저 간구하셨다.

3. 기도는 영혼의 갈망이다

- 1)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의 갈망이다.
- 2)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다.
- 3)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하시니라.

4.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이며 권리이다**5. 기도는 이웃을 위한 최선의 사랑의 통로이다****6.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다****7. 기도는 영적 투쟁이다**

- 1) 기도는 자신과의 영적 투쟁이다.
- 2) 기도는 사탄과의 영적 투쟁이다.

8. 기도는 신령한 헌신이다**9. 기도는 경건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이다****10.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최선의 길이다**

- 1)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 2)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성경적 기도의 정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단순한 대화가 아니고, 성도의 호흡이고 생명이며, 삶 자체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언어(Language)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으로 듣는 기도(QT)가 있다.

1) 성경적 회개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헐리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통로이다.

○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마4:17)

○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막1:15)

○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죄 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24:46-48)

2) 성경적 기도는 사탄의 시험과 악을 막고 이기게 하는 성령의 검이며 방패이다.

○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26:41)

3) 성경적 기도는 성도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지름길이다.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딤전4:5)

1. 기도는 사랑의 관계이다.

1)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다.

(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멀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3:16-17)

(2)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요일4:9-10)

2) 기도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다.

(1)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2)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5:7)

(3)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8:35-39)

3) 기도는 성령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6-28)

4) 기도는 성도의 사랑의 관계이다.

(1)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다.

(2) 도고(Intercession)는 성도와 성도와의 사랑의 관계이다.

○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행

1:12-14)

○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약4:8-10)

2.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役事)이다.

1)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2) 예수님께서 먼저 초청하셨다.

(1) 예수님께서 먼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다.

○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둘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7:7-12)

(2)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요14:13)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4)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4-15)

3)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먼저 간구하셨다.

○ 이와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8:26-28)

3. 기도는 영혼의 갈망(渴望)이다.

기도는 유한 세계에 살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께 드리는 영혼의 갈망이다.

1)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영혼의 갈망이다.

(1)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 하나님아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시42:1-2)

(2)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시130:5-6)

(3) 나는 여기서 주려죽는구나

○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아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눅15:16-17)

2)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다.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신 분이 어떻게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을까? 이는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시는 중보자의 목마름이다.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요4:10)

○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7:37-39)

○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전2:5)

○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요19:28)

3)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하시니라 (메시야의 기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을까?

(1) 이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중보자의 부르짖음이다 이는 우리의 대속 주가 되시는 메시야 곧 그리스도의 기도이다.

○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4:15)

○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27:46)

(2) 다윗을 통한 예표적 메시야의 기도

○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둡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시22:1)

4.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이며 권리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이며 권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다.

1)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1:12-13)

2)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다.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3:23-24)

○ 그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5:1)

3) 믿는 자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8:14-17)

4)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다.

○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갈4:6-7)

5. 기도는 이웃을 위한 최선의 사랑의 통로이다.

이웃을 위한 도고(禱告, Intercession)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최선의 길이다. 우리는 기도로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할 수 있다.

1) 모세의 도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출32:31-32)

2) 바울의 도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9:1-3)

3) 에스더의 도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 음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에4:16)

6.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1)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승리

○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출17:8-13)

2)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게 한 모세의 기도

○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출32:11-14)

3)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한 여호수아의 기도

○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

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수10:12-14)

4) 15년 생명을 연장 받은 히스기야의 기도

○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삼 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왕하20:1-6)

○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 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사38:1-6)

5) 해 그림자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한 이사야의 기도

○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왕하20:9-11)

(6)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7. 기도는 영적투쟁이다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매어달려 간구하는 영적투쟁이다. 하나는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다스리는 자신과의 영적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과의 영적투쟁이다.

1) 기도는 자신과의 영적투쟁이다.

(1)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후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7:15-8:4)

(2)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8:5-11)

(3) 나는 날마다 죽노라

○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

(4)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9:23)

(5)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롬14:7-8)

(6)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

2) 기도는 사탄과의 영적투쟁이다.

(1)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

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여 하심이라(엡6:10-20)

(2)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마26:41)

(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 내가 궁핍하므로 밀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1-13)

(4)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벧전5:8-9)

8. 기도는 신령한 헌신이다

기도는 마음과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헌신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제사제도는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피와 함께 드렸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는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물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피와 함께 드렸다. 다만 피 없는 제사는 소제(Grain Offering)로 이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이다. 이는 거룩한 예배이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라는 뜻이다.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1-2)

9. 기도는 경건(敬虔)에 이르는 성화(聖化)의 과정이다.

1)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맹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볍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으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록(딤전4:5-9)

2)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더니

○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행10:1-2)

3)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벧전1:15-16)

○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임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11:44-45)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19:1-2)

4)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한다.

○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수24:14-15)

10.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최선의 길이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졌고, 기도하여야만 이루어진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것으로 성취시키는 최선의 길이다.

1)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1)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창22:15-18)

(2) 이삭의 간절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창25:21)

2)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1)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 많은 날이 지나고 제 삼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 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왕상18:1-2)

(2)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끓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밀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 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깁깝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왕상18:41-46)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순서와 내용

1. 먼저 기도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

2.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 1) 회개(Confession)
- 2) 찬양(Adoration)
- 3) 감사(Thanksgiving)
- 4) 간구(Supplication)
- 5) 도고(Intercession)

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다.

4. 아멘으로 끝맺는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순서와 내용

성경적 기도는 먼저 기도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린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고, 아멘으로 끝맺는다.

1. 먼저 기도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임으로, 기도를 받으시는 분, 곧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른다. 그러나 성경 밖의 기도는 사람 중심의 기도임으로 자기 임의로 필요에 따라서 기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Lord’s Prayer)” (마6:9, 뉴 11:2)에서 성경적 기도를 배워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마6:9)

하늘에 계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먼저 부르라고 가르치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 1)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다.
- 2)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죄인인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뜻이고, 죄인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막혀 있었던 죄의 담이 없어졌고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이다.
- 3)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구원 받은 공동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하는 것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있고, 나는 피조물이며,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 기도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 받은 공동체,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2.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Lord's Prayer) 및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개(Confession), 찬양(Adoration), 감사(Thanksgiving), 간구(Supplication), 도고(Intercession)로 되어 있다.

1) 회개 (Confession)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왜,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여야 하나?

(1)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 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시66:18)
- 나)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사1:15)
- 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데려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냈이라(사59:1-3)
- 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렘5:25)
- 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벧전3:7)
- 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께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시102:1-2)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Blessings)이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2)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미 구원 받은 자, 의(義)

롭다고 칭(稱)함을 받은 자,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가 왜 계속해서 회개하여야 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 받은 성도는 의롭다고 칭함(稱義)을 받는다(롬3:24).

칭의(稱義)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한 “의(義)”가 근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방편이 되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심은 사망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 값을 나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불할 죄의 심이 없어졌다는 뜻이며,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성도는 의롭다고 칭함은 받았으나,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새로 범하는 죄를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

바울 사도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롬7:18-19)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7:24)하고 한탄하였으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롬7:25) 하며, 육신 안에 거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고 승리를 고백한다(롬7:15-8:4).

구원 받은 우리는 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옛사람)을 죽이고 (고전15:31) 육신과 싸워 이겨야 한다. 바울은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한다”(롬7:22-23)하고 탄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요일1:9), 용서하신 죄는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다.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될 때에,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며,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고전15:31),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갈2:20).

○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

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롬 7:15-21)

(3) 회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Aadmission)하고,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과거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자백(Confession)하고, 용서를 구하며,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비하게 사는 것이다.

- 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My Lord), 나의 하나님(My God)으로 인정한다.
- 나) 내가 죄인(sinful man, sinner)인 것을 인정한다.(눅15:17-21)
- 다) 나의 죄가 생각나도록 성령님께 먼저 간구한다(요14:26, 16:7-13).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과거와 현재에 지은 모든 죄를 자백(Confession)하고, 용서를 구한다.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14:26)

- 라) 즉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죄(sins)와 악(evil)에서 떠난다.(욘3:8)
- 마) 회개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Fear God), 스스로 낮추고(Low), 겸비(Humble)하게 생활한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이며,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 ① 회개한 후 니느웨 성 왕의 겸비(욘3:6-9)
- ② 회개한 후 아합의 겸비(왕상21:27-29)
- ③ 바벨론으로 끌려간 므낫세의 겸비(대하33:11-13)
- ④ 을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겸비 (왕하22:19-20)
- ⑤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들은 르호보암의 겸비(대하12:1-2, 4-7, 12)

○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3:17-18)

- 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기뻐하

시며 사랑하신다.

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죄는 기억하시지 않는다.

-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요일1:9)
- 주께서 내 죄악을 사(赦)하셨나이다 : 다윗의 시(시32:5, 51:1-4)
-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히9:22, 요19:30, 34)
-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贖)하느니라(레17:11, 요일4:9-10)
- 대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히4:15, 뉘1:15, 히7:20-28)
-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 지 아니하리라(히10:17-18)
- 네 죄를 기억 지 아니하리라(사43:25)

2) 찬양 (Adoration)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곡조 있는 기도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
alleluia,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시146:1-2)

- (1)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송영, 찬양과 경배, 주일, 폐회, 아침과 저녁, 현금)와 성부(창조와 섭리), 성자(예수 그리스도, 강림, 탄생, 생애, 고난, 부활, 재림, 성령 삼위와 구원(속죄, 거듭남, 성결)과 천국과 성경과 교회(하나님 나라, 전도와 성경, 선교와 봉사)와 성례와 예식(성찬, 흔례, 장례)과 절기와 행사(신년, 어린이, 청년, 어버이, 가정, 감사절)와 성도의 생애(부르심과 영점, 회개와 사죄, 신뢰와 확신 소명과 헌신, 시련과 극복, 봉사와 충성, 분투와 승리, 은혜와 사랑, 인도와 보호, 평안과 위로, 기도와 간구, 축복과 감사, 주와 동행, 주를 본받음, 제자의 길, 성도의 교제, 신유, 소망)와 송영과 영창 등 신앙생활 전반에 속한 곡조 있는 기도이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 (2)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나의 죄를 자백할 수 있으며,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고, 찬양으로 간구할 수 있으며, 찬양으로 이웃을 위한 도고(Intercession)를 드릴 수 있다.
- (3) 바울과 실라는 한 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발이 차꼬에 채워있었으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행16:24-25)을 통하여 고통을 이길 수 있었고, 찬송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
- (4)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지니라(수6:4-5) 여기서 제사장 일곱의 양각 나팔소리는, 백성들의 기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백성들의 기도이며 찬양이다.

(5) 시150편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시150:1-2) 나팔소리와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통소와 큰 소리 나는 제금과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시편이 끝이 난다. 우리의 음성이나, 악기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

가) 구약의 찬양

- 모세의 찬양(출15:1-18)
- 미리암의 찬양(출15:20-22)
- 다윗과 시편의 찬양(시51:15, 145:1-21과 시편)

나) 신약의 찬양

- 마리아의 찬양(눅1:46-55)
- 제자들의 찬양(마26:30)
- 바울과 실라의 찬양(행16:24-25)

찬양은 성도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꼭조 있는 마음과 입술의 기도이다.

찬양은 성도가 세상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통로이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삶의 고백이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3) 감사 (Thanksgiving)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하나?

(1)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바울의 감사

○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홀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궁홀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딤전1:12-17)

가) 나 같은 죄인에게 직분을 주심에 대한 감사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어 여기사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딤전1:12-13).

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믿음과 사랑으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임하셨다(딤전1:14-15).

다) 나 같은 죄인을 다른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심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의 궁홀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딤전1:16).

바울의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랑에 대한 감사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심에 대한 감사와 나 같은 죄인을 궁홀히 여기사 오래 참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심을 감사했다. 바울 사도는 나 같은 죄인도 이와 같이 구원하시고 써주셨는데, 하물며 디모데 너를 사랑하시고 써주시지 않겠느냐?

○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빌3:17)

(2) 고침 받은 사마리아인 나병환자의 감사

○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눅17:11-19)

- 가) 나병환자 열 명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나)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 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 라)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아래에 엎드려 감사하였다.

- 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 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 ① 나병환자 열 명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간구(기도)하였다.
 - ② 예수님께서 나병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열 명의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셨고 모두 육신의 병이 치유함을 받았다.
 - ③ 그러나 사마리아 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와 감사했다.
 - ④ 예수님께 나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인은 육신의 병은 물론 영혼의 구원도 받았다.
 - ⑤ 감사는 육신의 병의 치유는 물론, 예수님께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한다.
- 사) 기도의 목적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응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 받는데 있다.

기도의 목적은 나의 소원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까?

(1) 나를 속량하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찾아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사, 나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내 마음에 넘치게 된다.

○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6-18)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4-7)

(2) 내 이웃과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아 감사한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과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을 인하여 감사했다.

○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롬1:8)

○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살후1:3-4)

(3)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에 대하여 감사한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로다.

○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50:14-15)
○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시100:1-5)

(4) 감사는 능력이다(Thanksgiving is Power).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나에게 능력(power)이 생긴다.

- 가) 나를 구속하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찾아 감사할 때에, 나의 마음 속에 기쁨이 생기게 된다.(Ingoing Power)
- 나)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때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넘쳐난다.(Outgoing Power)
- 다)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Upgoing Power)

(5)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 가지 방법

가) 찬양과 시와 묵상을 통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 헌심(獻心)

○ 황소를 드림보다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리라(시69:30-31)
○ 시(Psalms)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시95:1-7)
○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시77:12)

나) 나의 물질을 기쁘게 하나님께 바침으로 감사한다 : 헌물(獻物)

○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말3:7-9)
○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께 드린다(요12:3)

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한다 : 헌신(獻身)

○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롬12:1-2)
○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14:7-8)

4) 간구 (Supplication)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왜 구하라(Ask)고 하셨을까?

-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마6:8, 31-32)
-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마7:7-8)
-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렘29:11-13)
-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렘33:3)

(2)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마6:8, 32),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며, 또 구한다고 무조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요1:12-13)
-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롬8:15-16)
-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遺業)을 이을 자니라(갈4:6-7)
-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마6:8)
-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마6:32)

(3) 기도는 임의로 할 수 있으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

○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읊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눅22:42)

(4)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다. 하나님은 사랑 (Agape)이시다.

-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롬5:8)
-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롬8:32-39)
-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요일4:8-10)

(5)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성급한 태도는 금물이다.

마음이 조급하면 이삭대신 이스마엘을 만든다.

-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 하나님의 언약(창12:1-3)
- 네 몸에서 날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 하나님의 재확인(창15:2-7)
- 사래의 조급한 생각과 아브람의 실수 :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창16:2-3)
-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창16:15-16)
-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창17:15-16)

- 사라가 늙어 여성의 생리가 끊겼다(창18:11)
- 사라가 임신하여, 90세에 이삭을 낳았다 : 하나님의 언약 성취 (창21:2-5)

(6) 100% 하나님의 뜻과 0% 나의 뜻이 최선의 응답이다.

-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순종(창22:1-19)
- 여호와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시37:4)
-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다(시103:3-6)
-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빌2:13)

(7)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에스라와 같이 성경말씀을 항상 읽고, 고넬료와 같이 항상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알 수 있으며,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에 빠지기 쉽다.

- 에스라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매(느8:1-6)
-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더니(행10:2-5)
-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마26:41)
-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요13:2)
-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요13:27)
-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사탄이 들어갔다(눅22:21-23)
-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번 하였도다(마26:19-25)

5) 도고(禱告) (Intercession)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기도(Mediator's Prayer)와, 성도의 도고(Intercession)

- (1) 예수님의 중보기도(눅22:31-32, 44, 요17장, 롬8:34, 히5:7)
- (2) 성령님의 중보기도(롬8:26-28)
- (3) 성경에 나오는 도고(Intercession)

가) 예수님의 기도 명령

-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5:44)
-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눅6:27-28)

나) 스테반의 도고

-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7:59-60)

다) 온 교회의 도고

-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행12:5)

라) 바울의 도고

-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엡1:16)
-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골1:9)
-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살전3:10)

마) 아브라함의 도고

-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창18:22-33)
-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룻을 내보내셨다(창19:29)

바) 바울의 도고 부탁

-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롬15:30)
-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후1:11)
-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엡6:18-19)
-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살전5:25)
-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딤전2:1-2)
-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몬1:22)

사) 야고보의 도고 부탁

-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약5:14-16)

아) 에스더의 도고 부탁

-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에4:15-17)

(4) 도고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가져 오는가?

- 왕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전2:1-2)
-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 하더라(눅22:43)
- 온 교회가 철야하며 도고 할 때에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다(행12:5)
-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영이다(히1:14)

6) 기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1)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함(창22:12)
-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벧전1:15-16)

(2) 좋은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한다.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딤후3:16-17)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히4:12)

(3)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양의 성경을 매일 읽으며 살아야 한다.

○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신다(막1:35)

(4)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였다(행3:1)

(5) 기도로 새벽을 깨워야 한다.

○ 다윗은 새벽에 기도하였다(시57:8, 108:2)

(6) 열심히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기도의 힘을 돋는다.

○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눅22:43)

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다.

1)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2)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14:13-14)

3)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3:17)

4. 아멘(Amen)으로 끝맺는다.

1)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Yes)가 되는 것이다.

○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1:20)

2)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다.

○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계3:14)

1. 중보기도란 어떤 기도인가?

2. 성도의 도고(Intercession)를 중보기도(中保祈禱)라고 할 수 있나?

1. 중보기도(Mediator's Prayer)란 어떤 기도인가?

한글개역성경과 개역개정성경을 보면, 모두 남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도고”라고 쓰고 있다.

○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딤전2:1)

○ “I urge, then, first of all, that requests, prayers, intercession and thanksgiving be made for everyone”(딤전2:1).

성경 KJV와 NIV에는 남을 위하여 드리는 도고를 “intercession”으로 쓰고 있다.

성경에는 중보 또는 중보자(Mediator)란 단어가 구약에 한 곳(사38:14), 신약에 여섯 곳(갈3:19, 3:20, 딤전2:5, 히8:6, 9:15, 12:24) 모두 7번 나온다. (완벽 성경성구대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唯一)하신 중보자(中保者, Mediator)로 말씀하고(딤전2:5), 중보기도(中保祈禱)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中保者, Mediator)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기도(Mediator's Prayer)를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계4:8)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으로(롬3:23),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없이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다. 따라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선지자(先知者, Prophet)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祭祀)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祭司長, Priest, 히5:1-6)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악(惡)하고 추(醜)하고 더러운 죄 많은 인간은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계4:8)께 중보자(Mediator) 없이는 결코 직접 나아갈 수 없으며, 직접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직접 기도 할 수도 없었다.(시66:18, 사1:15, 사59:1-3) 따라서 구약의 성막(聖幕)에는 지성소(至聖所)와 성소(聖所)가 있었고, 지성소(至聖所)와 성소(聖所) 사이에는 휘장(揮帳)이 막혀 있었으며, 휘장 앞에 기도의 제단인 향단이 있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성소에는 대 제사장도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일 년에 한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에도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으며,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들도 반드시 물두명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만 했다.

따라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히3:1)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고 하셨고, 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딤전2:5, 히8:6)를 통하여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유일(唯一)하신 중보자(中保者, Mediator)이시고 대제사장(High Priest)이 되시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만 중보자(中保者, Mediator)의 중보기도(中保祈禱)이다.

따라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기간 중에 제자들을 위하여 많은 중보기도를 하셨다(막1:35, 뉘6:12-13, 마26:41, 히5:7, 뉘22:31-32, 44, 요17장).

많은 사람들은 남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중보기도(Mediator's Prayer)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Mediator)가 될 수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중보자(中保者, Mediator)의 중보기도가 아니고 오직 남을 위하여 드리는 사랑의 도고(Intercession)이다. 따라서 바울은 딤전2:1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懇求)와 기도(祈禱)와 도고(禱告)와 감사(感謝)를 하되”하고, 남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도고(禱告, Intercession)”라고 했다.

영어성경(NIV)에도 “I urge, then, first of all, that requests, prayers, intercession, and thanksgiving be made for everyone”하고 Intercession(도고)란 용어를 사용하였지 Mediator's Prayer(중보기도)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Intercession(도고)은 Mediator's Prayer(중보자의 기도)가 아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경에 없는 말이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꼭 쓰고 싶다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기도에만 한정하여 쓰는 것이 옳다.

다른 사람이나, 교회나, 선교사나, 국가나 민족이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중보기도(Mediator's Prayer)”가 아니고 “도고(Intercession)”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된 한글 개역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에는 분명히 “도고”로 되어있다(딤전2:1). “중보기도”란 말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용어이다.

2. 성도의 도고를 중보기도(中保祈禱)라고 할 수 있나?

중보기도(中保祈禱)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中保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기도이다. 중보기도는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자의 기도이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중보자(Mediator)로서의 중보기도를 할 수 있을까?

- 1) 요한복음13:34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너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과연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는 할 수 있다.
- 2) 누가복음1:26-35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라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1:35). 죄인인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임태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 3) 마태복음5:48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穩全)하라”고 말씀하신다. 과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있을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있다.
- 4) 레11:44-45, 19:2, 벤전1:15-16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 과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같이 거룩할 수 있을까?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 5)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삶이다. 따라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

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죄인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었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할 수 있다.

- 6)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드리는 기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드리는 기도이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며,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위하여 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나 성령님 같이 중보자(Mediator)가 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의 몸 안에서 사는 죄인이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지(dikaiow),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 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이나 국가나 민족 등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 같이 중보자(딤전2:5)로서의 중보기도(Mediator's Prayer)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위하여 드리는 사랑의 도고(Intercession)인 것이다.
- 7)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예수님의 피를 흡입어, 예수님의 육체를 나타내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지성소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중보자(Mediator)가 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중보자로서의 중보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사랑의 도고(Intercession)인 것이다.

○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마27:5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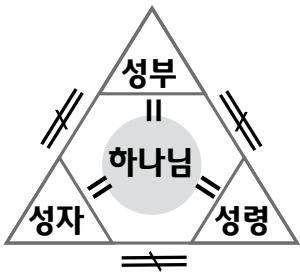
○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흡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히10:19-20)

성도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죄인이고, 아직 육신 가운데에 살고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나,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나 성령님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중보기도(Mediator's Prayer)는 아니다. 성도는 도고자(禱告者)이지 중보자(中保者)가 아니다.

1. 성령님은 누구신가?
2. 성령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나?
3. 성령님의 중보기도
4.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가?

1. 성령님(Holy Spirit)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3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신 인격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동격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시다. 사람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의 인격(person)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신성이 세 위격(three persons, three hypostasis)으로 존재 하신다. 하나님의 본질(essence)은 하나이지만 이 본질이 구현하고 있는 위격(person, hypostasis)은 셋이라는 것이다. 칼빈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위격들의 삼위일체가 있다(in the one essence of God three is a trinity of persons)는 말이다. (J. Calvin, Institute, I. viii, 5) (새 번역 사도신경 해설, 이종윤)



성부는 성자와 다르고, 성자는 성령과 다르며, 성령은 성부와 다르다.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 이시며, 성령도 하나님 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되시는 유일신(唯一神) 하나님 이시다.

삼위일체는 삼신론(三神論), 양태론(樣態論, modalism)과 다르다.

- 1) 성부는 태초에 천지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거룩한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 이시다(창1:1, 요4:24).
- 2) 성자는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이시다(요1:1, 요1:14, 요16:7).
- 3)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3위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신 인격이시며, 지성(知性), 감정(感情), 의지(意志)를 갖고 계신 하나님 이시다.

(1) 성령님은 지성(知性)이 있는 분이시다(고전2:10-11).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시다.

(2) 성령님은 감정(感情)이 있는 분이시다(롬8:26-28, 15:30, 앱4:30).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시는 하나님 이시다.

(3) 성령님은 의지(意志)가 있는 분이시다(고전12:3, 12:11).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모든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

2. 성령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나?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려고 오셨다.

○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요16:7-11)

○ 죄에 대하여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요

신약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 의에 대하여라함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이다.
(엡2:8-9, 롬3:24, 5:1)

○ 심판에 대하여라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요

사탄은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요3:14-15, 민21:4-9)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살리셨다.(엡 2:1-2)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요12:31, 요 5:27-29)

1) 성령님의 내재(요14:16-17, 27)

- (1)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 (2)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
- (3) 성도는 성령님을 알 수 있다.
- (4) 성령님은 성도 안에 거(居) 하신다.
- (5) 성령님은 성도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

2) 성령님의 교육(요14:25-26)

- (1)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셨다.
- (2) 성령님은 성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 (3)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3) 성령님의 증거(요15:26-27)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4) 성령님의 사역(事役)(요16:7-14)

- (1)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가) 죄에 대하여라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나) 의에 대하여라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다) 심판에 대하여라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 (2)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 (3) 성령님은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 (4)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5)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였다(딤후3:16-17).

- (1)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 (2)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 (3)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6)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다(고전12:3).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님의 역사이다.

7) 성령님은 성도를 거듭나게 하신다(요3:5, 딤3:5).

- (1)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 (2)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

8) 성령님은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게 하신다(갈5:16).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9) 성령 충만케 하신다(엡5:18).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0)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행1:8).

- (1)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 (2) 성령의 권능은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 사랑의 권능을 말한다.
- (3)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11)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요약

- (1) 성도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요16:8-9, 요14:26).
- (2)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요16:13).
- (3)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요16:14).
- (4) 성도의 연약함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롬8:26).
- (5)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롬8:27).
- (6) 하나님의 영감으로 정확무오한 성경을 기록하시기 위해 오셨다(딤후3:16-17).
- (7)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전12:3).

- (8)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신앙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요3:5 딤3:5).
- (9)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갈5:16).
- (10)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행1:8).

3. 성령님의 중보기도

1) 성령님의 중보기도의 내용

- (1)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 (2)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 (3)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롬8:26).

2)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 (1)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 (2)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 (3)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나라(롬8:27)

3) 성령님의 중보기도의 결과

- (1)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 (2)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 (3)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롬8:28).

4.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가?

1) 세상에는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

| 비 그리스도인의 기도 (Non Christian) | 그리스도인(Christian)의 기도 |
|--------------------------------|---------------------------------------|
| <p>고전 2:14 육에 속한 자</p> | <p>고전 2:15~16 성령 충만한 자</p> |
| | <p>고전 3:1~3 어린 신앙인 / 육신에 속한 자</p> |

을 받지 아니 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고전 2:14-3:3)

2)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5:18)

말씀의 앞부분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뒷부분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다. 이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술 취함은 동일한 현상임을 말하고 있다.

- (1) 술 취함은 술이 육체를 주관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이 육체를 주관하는 것이다.
- (2)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고, 성령 충만은 거룩한 것이다.
- (3) 술의 공급이 끝나면 술에서 깨어나듯이, 성령 충만도 말씀과 기도가 끊이면 중지된다.
- (4) 술 취함은 내가 술을 마시므로 취하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 (5)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된 것과 같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다.

3)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는 성령님의 주관 하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죽고 오직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나는 죽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갈2:20, 고전15:31).

성령 충만한 성도는 신령한 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를 말한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그의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자로, 그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 하시는 자를 말한다.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삶을 말한다(고전2:15-16).

4)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 (1)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하는 성도는 먼저 깊은 회개가 있어야 한다.

모든 죄를 토해내라: Exhaling (고전3:1-3, 요일1:9)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성도가 성령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령한 성도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며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여야 한다. 즉 예수님은 믿고 있으나 장성한 신앙인의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여야 한다(고전3:1-3).

(2)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려라 : Inhaling (마7:7-12)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간구가 있어야 한다.

○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2:13)

○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마7:7-8)

(3)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어야 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5:18)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명령이다.

(4)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어 주심을 믿어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고 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5:14-15)

(5)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된 것 같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나의 공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먼저 철저한 회개와 간절한 소원과 간구가 있어야 하고, 이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는 마음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삶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

나며,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5)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의 요약

- (1)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성도는 먼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모든 죄를 토해내야 한다(Exhaling).
- (2)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소원과 간구가 있어야 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Inhaling).
- (3)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 (4)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어야 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 (5)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것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 (6) 성령 충만을 받은 중거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삶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 (7)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존하고, 계속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1. 기도의 상달과 응답
2. 하나님께 상달하지 않는 기도
3.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 1) 긍정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
 - 2) 부정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

1. 기도의 상달과 응답

1) 기도는 성도의 뜻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렘29:12-13)
 ○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마7:7-8)

2)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하지 못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다.

(1) 주여, 내 기도가 주께 상달케 하소서,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시102:1-2)

(2)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단9:19)

2. 하나님께 상달하지 않는 기도

- 1)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의 기도(시66:18, 사1:15, 사59:1-3, 렘5:25, 벤전3:7)
- 2)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자의 기도(마6:14-15, 막11:25, 뉘11:4)
- 3)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의 기도(마21:22, 히11:6, 약1:6-7)
- 4) 마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기도(삿10:13, 렘11:13-14, 갤14:1-3)
- 5)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한 자의 기도(벤전3:7)
- 6)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한 자의 기도(마5:22-24, 막3:31-35)
- 7) 주는데 인색한 자의 기도(잠21:13, 마26:31-46)
- 8) 욕심(정욕)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약4:3, 마20:21-22)
- 9) 외식하는자와 중언부언하는자의 기도(마6:5-7)
- 10)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잠28:9)
- 11) 자긍하고 교만한 자의 기도(눅18:11-12)
- 12) 염려와 낙심 가운데 구하는 자의 기도(눅18:1, 벨4:6-7)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기억나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시66:18)하였는데, 시 66:19-20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라고 하셨다.

그 이유는 시66:18과 19 사이에 “회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러나 상달된 기도의 응답은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

○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9)

○ 나는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사43:25)

○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히10:17-18)

○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잠16:1)

○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요일5:14-15)

3.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

1) 긍정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

(1) 즉시 긍정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 (Yes)

하나님의 뜻과 기도자의 소원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기도자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시간이 일치할 때

- 가) 기드온의 기도: 이슬과 양털, 이슬과 사면 땅(삿6:36-40)
- 나) 엘리야의 기도: 여호와의 불과 큰 비(왕상18:16-46)
- 다) 히스기야의 기도: 15년 생명 연장(왕하20:5-6)
- 라) 바디메오의 기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곧 보게 되니라(막10:46-52)
- 마) 나병환자의 기도: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마8:2-3)
- 바) 백부장의 기도: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마8:5-13)
- 사) 한 관리의 기도: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마9:18-19, 23-25)

(2) 기다리라고 응답하시는 경우 (Wait)

하나님의 뜻과 기도자의 소원은 일치하나, 하나님의 시간과 기도자가 응답 받기를 원하는 시간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 가) 모세,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출14:13-14)
- 나) 다윗,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시37:7)
- 다) 예레미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애3:25-26)
- 라) 하박국,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합2:3)
- 마) 아브라함과 사라, 25년을 기다림 - 이삭(창12:1-4, 21:1-5)
- 바) 이삭과 리브가, 20년을 기다림 - 에서와 야곱(창25:19-26)

하나님의 시간은 늦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맷돌은 늦는 것 같지만 가장 곱게 갈아진다."

(3) 지금 일을 시작하라고 응답하시는 경우 (Get to work)

하나님의 뜻과 기도자의 소원이 일치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자가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이다.

- 가) 지팡이 든 손을 바다위로 내어 밀 때에, 홍해가 갈라졌다(출14:15-16, 21).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출15:8, 시18:15, 삼하22:16)
- 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 때에 물이 합하여 다시 흘렀다(출14:26-28).

- 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반석을 칠 때에 물이 쏟아졌다(출17:6).
- 라)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다(수3:15-16).
- 마)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몸이 일곱 번 요단강 물에 잠길 때에 몸이 나았다(왕하5:8-14).
- 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씻을 때에 보였다(요9:6-7).

2) 부정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

(1)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기도자의 소원이 다른 경우에는 No 라고 응답하신다.

기도자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자에게 복된 것이다. 예수 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기도에 No 라고 응답하셨다.

-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26:36-46, 막14:32-42, 뉴22:39-46)
-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뉴22:42)

(2)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No 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의 기도에 No 라고 응답하셨다.

-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후12:7-10)

(3) 기도자의 죄 때문에 No 응답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모세와 다윗의 기도에 No 라고 응답하셨다.

가) 모세의 기도에 No 응답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으나 모세는 회중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손을 들어 반석을 두 번 치므로 물이 나오게 하였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민20:7-8)

○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민20:11-12)

○ 구하옵나니 나를 전녀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신 3:25-26)

나) 다윗의 기도에 No 응답

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뱃세바를 통하여 낳은 첫 아이가 병들었을 때에 다윗이 금식하고 철야하며 간구하였으나 그 아이는 죽었다.

○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 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매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삼하12:15-18상)

②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殿)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대상22:8, 28:2-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의롭다고 칭(稱)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성도는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No 라고 응답하시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No 하고 응답하신다면 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No 라고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과 기도

1.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敬畏)하는 사람이다.
2. 기도의 사람은 유순(柔順)한 사람이다.
3. 기도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
4. 기도의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다.
5. 기도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다.
6.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7.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8. 기도의 사람은 발에서 신을 벗은 사람이다.
9.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이다.
10. 기도의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과 기도

성경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골4:2)고 되어있다. 그리스도인과 기도는 끊을 수 없는 생명적 관계이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었던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사들, 사무엘, 다윗,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들과 특히 바벨론 포로 당시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물론 초대교회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바울은 강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루터, 존 칼빈, 스콧트렌드의 존낙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중국대륙에 복음의 빛을 밝힌 허드슨 테일러와 인도에 생명의 복음을 전한 위리엄 케리와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리빙스턴 등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왜 교회가 힘이 없고, 사랑이 없으며, 왜 성도들의 신령한 권능이 약해졌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역사(役事)하시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원(願)하신다.

○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도다(시34:15)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통로이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행13:22) 하신 이유는 다윗은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시편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의 기도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이고(출6:7),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며(요1:12), 목자와 양(시100:3)의 관계이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관계의 통로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요14:6).

기도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다. 따라서 크리스천만이 성경적 기도(Biblical Prayer)를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이다. 아니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다.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이 텃줄을 통하여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공급 받듯이 그리스도인은 기도 줄을 잡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생명과 능력과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할 수 있고, 어떻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는가? 자녀와 아버지와의 대화는 필수적이며 절대적인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의 통로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야 한다.

기도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생명의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죽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거룩해 지는 성화(聖化)의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도고(Intercession)의 시간이다.

예수님은 중보기도(Mediator's Prayer, 딤전2:5)하셨고

제자들은 도고(Intercession, 딤전2:1)하였다.

예수님은 삶과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다. 금식기도(눅4:1-2), 새벽기도(막1:35), 철야기도(눅6:12), 산기도(마14:23), 한적한 곳에서 기도(눅5:16)를 하셨으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5:7)고 기도를 가르치셨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주의 종들은 모두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저들은 기도를 사랑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저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직결되는 생명줄인 것이었다. 저들은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기도가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다.

기도는 믿음, 소망, 사랑, 성령 충만, 전도, 선교, 교육등 많은 것들 중의 하나가 아니고, 모든 것들 보다 앞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명의 통로인 것이다.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부터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 그리스도인 중에 힘이 없고, 사랑이 없으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눅11:1)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

기도보다 앞서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보다 앞서 행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게 하소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로 평생을 살고, 기도로 생을 마치게 하소서.

1.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敬畏)하는 사람이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근본이다. (잠1:7,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한다는 뜻이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롬1:17)

“하나님을 경외한다”(Fear God, The fear of the LORD)는 말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우하고 공경하며, 믿고 순종하며, 의존하고 섬기며, 충성하며 사는 것이고, 이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My God), 나의 아버지(My Father), 나의 주님(My Lord)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며,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1:7)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9:10)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7)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1)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臨在) 앞에서 신을 벗고 사는 사람이다.

모세가 살던 때에 “신을 벗고 사는 사람”은 노예나 종이나 죄인들이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고, 물건과 같은 존재임으로, 매매와 교환이 가능했고, 인간이 아니므로 인권이 없고, 자기의 가족도 없고, 자기의 주권이나 생각이나 의견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주인의 소유물이며, 주인에게 속한 종(Slave)이다.

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자로서,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바로 앞에 나갔으며, 바로 앞에서 모세의 생각이나, 모세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10가지 재앙을 시행하여 출애굽하였다.

○ 하나님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3:5)

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신을 벗은 자로서,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종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오직 여호와의 뜻과 방법대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

○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수5:15)

다) 선지자 이사야의 벗은 몸과 벗은 발의 예표

○ 그 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베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앗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불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사20:2-5)

(2)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며 사는 사람이다.

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며 산 사람이다.

우리야의 아내 뱃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간접 살인한 다윗은 나단 선지

자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깊이 회개하고, 시편 6, 32, 38, 51, 102, 130, 143편 등 많은 시편을 썼으며,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合)한 사람이 되었다.

○ 다윗의 회개기도

시편 6, 32, 38, 51, 102, 130, 143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행13:22)

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깊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다메섹 유다의 집에서 삼일을 금식하며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다.

○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행9:3-5)

○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행9:8-9, 11)

○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9:15)

(3)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며 사는 사람이다.

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바쳤다.

○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창22:12)

나) 마리아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옥합에 든 향유를 예수님께 바쳤다.

○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마26:6-7)

○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막14:3)

○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요12:3)

다) 스데반과 바울은 가장 귀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음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7:59-60)
-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중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행21:13)
-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14:7-8)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

2)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되는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22:12)

(1)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는다.

○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니라(잠22:4)

(2)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받는다.

○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사33:6)

(3) 여호와의 것이 다 경외하는 자의 소유이다.

○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눅15:31)

(4)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인니라(롬8:17)

○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4:7)

(5)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신다.

○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

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15:1)

2. 기도의 사람은 유순(柔順)한 사람이다.

- 1)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비하며, 사람에게 유순하고 온유하며 겸손한 사람이다
- 2) 하나님의 마음이 온유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시며, 성령님의 마음도 온유 하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음이 온유하고 유순하며 겸손하여야 한다.
- 3)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하셨으므로(마25:40, 45), 기도의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하듯 유순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1) 하나님의 마음이 온유하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하시다고 고백한다.

○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시18:35)

○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삼하22:36)

(2)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시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다.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시며 사랑이시다.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11:28-30)

(3) 성령님의 마음이 온유하시다.

성도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항상 내재하고 계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의 마음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며 유순하다. 성령의 열매는 온유하다.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12:3)

○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

(4) 모세의 마음은 온유하였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12:3)

(5) 바울의 마음은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대함 같이 유순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유순한 사도가 되었다.

○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살전2:7-8)

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추었다.

○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펫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고전15:8-9)

나) 성도 중에 가장 작은자

바울은 자신을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추었다.

○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엡3:8)

다)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자신을 낮추었다.

○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딤전1:15)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성도는 모세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겸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겸손하며 유순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3. 기도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13:34-35)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21:15)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21:16)

이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사랑은 아가페(사랑)이다.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님 그려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에 베드로가 대답한,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은 아가페(사랑)가 아니고 필레오(사랑)이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아가페)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 우리는 다만 본능적인 사랑(?)으로 이성(異性)을 사랑하거나, 감성적인 사랑(?)으로 불쌍한 사람을 동정한 일은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나, 이기적인 사랑이다.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아가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아가페)은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아가페)

1. 사랑은 오래 참고
2. 사랑은 온유하며
3.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4.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5.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6.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7.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8.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9. 사랑은 남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10.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11.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12.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13.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14.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15.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13:4-7)

성경은 이상의 15가지가 사랑(아가페)이고, 그 내용이며, 그 방법이라고 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위의 15가지의 모든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을 죽이고, 먼저 오래 참고 온유해야 한다.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할 때에 남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남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따라서 오래 참고 온유한 것

이 사랑의 시작이다. 사랑(아가페)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믿음도 구제도 순교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이다.

○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13:1-3)

1)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22:37-40)

2)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따라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요1:1)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4:12-13)

3)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야 한다.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4:7-8)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

이 웃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13:14-15)

○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8, 막10:45)

4) 지극히 작은 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다.

○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25:40)

○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마25:45)

○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행9:4-5)

5)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령의 열매의 본질은 사랑(아가페, Agape)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며 돌보아야 한다.

○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벨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롬8:26-27)

○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3-24)

6) 예수님께서 부활 하신 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말씀이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볼 수 있는 것이다.

○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요21:15-17)

7)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1989년 9월-12월까지 영국 WEC에서 선교 훈련을 받은 일이 있다. 이곳은 선교 교육만 시키는 곳이 아니라 훈련도 함께 시켰다. 하루는 갑자 깍는 당번에 나의 이름이 올라있다. 새벽기도 예배가 끝난 후에 부엌 뒤에 있는 갑자 깍는 방으로 갔다. 덴마크 선교사 한분이 먼저 와 있다. 우리 앞에 갑자 두 자루가 놓여있다. 오늘 아침에 150 여명의 WEC에서 훈련 받는 식구들이 함께 먹어야 할 아침 식사용 갑자다. 이 많은 갑자를 30분 이내에 깎아야 한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덴마크 선교사를 보고 웃었다. 선교사도 나를 보고 웃으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며, 앞에 놓인 큰 통을 가리키며, 이것이 갑자 깍는 통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루에 담긴 갑자를 쏟아 물로 깨끗이 씻은 후에, 그 통에 쏟아 붓는다. 거의 한 자루가 다 들어갔다.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니 갑자 깍는 통 안에서 갑자들이 함께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5-6분 정도 지난 후에 파란 불이 켜진다. 아래쪽에 달려있는 뚜껑을 여니 갑자들이 아래로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갑자 껍질이 다 깨끗이 벗겨져 있지 않은가? 너무나 신기했다. 다만 꼬부라진 부분과 옹이가 있는 곳은 깎여있지 않았다. 나와 선교사는 옹이가 있는 것과 꼬부라진 갑자만 골라서 칼로 도려내면 된다.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자루의 갑자들이 통 안에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30분 내에 두 자루의 갑자를 모두 깎을 수 있었다. 갑자 깍는 통 안에서 갑자들이 서로 돌며, 비비면서 껍질이 깎여지는 것과 꼬부라진 부분과 옹이를 칼로 도려냄으로서 깨끗한 갑자가 되는 과정을 통하여,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원리를 깨달았다. 이웃에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갑자가 되기 위해서는 갑자의 껍질이 깎여지는 아픔이 있어야 한다. 갑자의 껍질이 깎여지려면, 갑자와 갑자가 통 안에서 돌아가면서 상대편의 갑자에 의하여 내 껍질이 깎여져야 한다. 내 껍질이 깎여 질 때에 나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깎여지지 않은 옹이와 꼬부라진 부분은 칼로 도려내지는 더 큰 아픔이 있어야 한다. 내가 남을 사랑하려면, 내가 남에게 먹기 좋은 깨끗한 갑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함께 공동 생활을 하면서 내 껍질이 깎여지는 아픔이 있어야 하고, 옹이와 꼬부라진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은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지는 아픔이 있어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육신 안에 살고 있으므로, 나의 옛사람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과 이기심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며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따라서 바울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으며, 항상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야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4. 기도의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며, 죄악된 세상을 보고, 눈물로 도고(Intercession)하는 사람이며, 이웃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동참하여 함께 눈물로 도고(Intercession)하는 눈물의 사람이다.

공생애 3년 동안에 예수님은 세 번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다.

1) 마리아와 함께 우시는 예수님

○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요11:32-35)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요11:43-44)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는데,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고, 이제 나사로가 곧 살아나리니 울지 말라고 하시지 않고, 마리아가 울 때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을까?

- (1)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의 일이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다.
- (2)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는 것은 마리아의 슬픔이고, 마리아의 아픔이며 마리아의 마음이다.
- (3) 예수님은 마리아의 슬픔과 아픔에 동참하셔서 위로하신 것이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 (4) 예수님은 먼저 마리아의 슬픔과 아픔에 함께 하셔서 친히 눈물을 흘리신다. 그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셔서, 기쁨과 놀랄과 평안을 맛보게 하신다.
- (5) 예수님의 사랑은 남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먼저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위로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와 우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연합이다.

○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

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요11:32-35)

○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요11:43-44)

○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12:15)

2)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

○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떼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눅19:41-44)

죄악으로 가득 찬 도성,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과 향락과 죄악에 빠져 살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멀지않아 멀망 당할 예루살렘 도성과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궁흘의 눈물을 흘리신다. 기도의 사람은 죄악의 도성을 보고 울어야 하고,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고 울어야 한다. 예수님과 같이 죄악된 세상과 사람들을 보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야 한다.

3) 기도하시며 통곡하시는 예수님

○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5:7)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회개기도와 남을 위한 도고(Intercession)이다.

(1)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를 통회자백(痛悔自白)하고 회개할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다. 눈물로 회개하며 깨어서 기도할 때에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

○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마26:41)

○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벼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고전9:27)

(2) 남을 위하여 도고(Intercession)할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여야 한다.

○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스9:5-6)

(3)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으로, 예수님께서 드린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드린, 중보자(Mediator)의 중보기도(Mediator's prayer)이다.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시니라 (요1:1)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4:15)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나?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며, 우리에게 통곡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가)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택한 백성을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代贖)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에 찔려 피 흘리사, 우리의 죄 삯을 지불하신 대속주이시다. 따라서 기도의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 내 이웃을 위하여 눈물로 도고하는 사랑의 사람이어야 한다.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맷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1:12-13)

○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롬1:6)

○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4:8-10)

-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요19:30)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요19:34)
-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9:22)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나) 예수님은 통곡하시며 눈물로 중보기도 하심으로 이웃을 위한 사랑은 눈물의 기도임을 가르치셨다.

기도의 사람은 눈물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사람이어야 한다.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내 민족을 위하여, 세계선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눈물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고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눈물의 사람이어야 한다.

○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전2:1-4)

○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삼상20:41-42)

5. 기도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4:4)
-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골4:2)

○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2:6-7)

○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3:16-17)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

1) 감사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예수님이 나의 감사의 원인이다.

2) 감사는 기쁨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는 내 안에서부터 넘쳐나는 기쁨의 능력이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찾아, 감사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나의 능력이다.(Ingoing Power)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이다.

○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4:6-7)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

우리의 생각이나 노력으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5:18)

3) 감사는 사랑의 능력이다.

감사는 내 이웃에게로 향한 사랑의 능력이다(Outgoing Power).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감사와 기쁨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아 감사할 때에,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연합이다.

○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희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안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살후1:3-4)

도고(Intercession)는 이웃을 위한 사랑의 기도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도고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도고할 수는 없다. 도고는 이웃을 위한 사랑의 기도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한 도고를 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여야 한다. 사랑하지 않는 자를 위한 도고는 외식하는 기도이다.

4) 감사는 믿음의 능력이다.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능력이다(Upgoing Power).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 날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감사는 내 안에 기쁨과 이웃 사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리나라오는 진정한 감사이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나의 믿음이 장성하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 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감사는 믿음의 능력이다.

○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 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시100:3-5)

6.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말씀 안에서 사는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3:15-17)

1)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시니라.(요1:1)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2) 여호와께서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세상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겔3:1-3)

(1)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나?

기도의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친히 나에게 먹여주시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계속해서 먹고 기도하며 가서 전해야 한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

서 내려온 뼈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뼈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요6:53-58)

가) 나는 말씀을 먹기 위하여 먼저 내 입을 벌려야 한다.

“내가 입을 벌리니”하는 말씀은, 내가 입을 벌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은 나의 머리와 나의 마음에 들어가나, 말씀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의미이다.

나) 나는 말씀을 배에 넣어야 한다.

말씀을 “네 배에 넣으며” 하는 말씀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내 것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는 말씀을 믿고, 의존하고, 지켜 행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이다.

다) 나는 창자에 채워야 한다.

말씀을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신 말씀은, 말씀이 나의 오장 육부에 들어가 말씀이 영양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며,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을 뜻한다.

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으며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말씀은 불같고 방망이 같은 것이다.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4:12-13)

○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나(렘23:29)

4) 모세가 흥해를 가를 때에는 “능력의 지팡이”를 뻗어 흥해를 갈랐지만(출14:14-16),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할 때에는 언약궤를 어깨에 멘 제사장들이 물을 밟고 설 때에, 언약궤를 어깨에 멘 제사장은 요단강에 빠져 죽었으나, 언약궤는 물에 잠기지 않으므로, 말씀의 능력이 요단강 물을 갈랐다는 뜻이다(수3:15-17).

“언약궤를 어깨에 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잠기자”(수3:15)한 말의 의미는 제사장은 물에 빠져 죽었고,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 있는 언약궤의 말씀은 물에 잠기지 않았으므로, 말씀의 능력이 요단강 물을 갈랐다는 뜻이다.

흥해는 능력의 지팡이가 갈랐지만, 요단강은 말씀이 갈랐다.

○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출14:14-16)

○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전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수3:15-17)

5)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것을 명령하시며 강하고 담대하여 이 율법책(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신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는 뜻이다.

○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6)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은 “오직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것이다.

○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10:17)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7)

7)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의 삶은 거룩하여진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성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록(딤전4:5-9)

7.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말하고, 전하고, 행하는 것이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다.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창12:1-3)

○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렘11:1-4)

○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행4:18-20)

○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히11:1-2)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2:8-9)

○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전2:2-5)

1) 구원 받은 믿음

- (1) 구원 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언약이다.
- (2)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므로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 (3)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 (4)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 (5)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은 없다.

○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멀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3:16-17)

○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16:30-31)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2:8-9)

○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9-10)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12:3)

2)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믿음

- (1)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을 말한다.
- (2)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함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 (3)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가 풍겨나야 한다.
- (4)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 (5)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말하고, 전하고, 행하는 것이다(히 10:17, 렘11:1-4)
- (6) 다른 사람에게 영적 부모가 되어,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11:1)고 하는 영적

부모가 되는 것이다.

(7)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삶이다.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7)

○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약2:14)

○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약2:26)

○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춧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치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눅6:46-49)

○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고후2:14-15)

○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타온다(고후3:3)

○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14:7-8)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

3) 믿음으로 사는 자의 기도

(1)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마21:21-22)

(2)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한 기도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막 9:22-24)

(3) 예수님은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진실된 믿음은 보여 지는 것이다.

○ 맹인이 걸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마10:50-52)

○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눅7:9-10)

(4)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다만 목수의 아들, 형과 아우의 인간관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마 13:55-58)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믿음”과 성도가 “사는 믿음”과 기도할 때에 “바라는 믿음” 사이에는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살 때에, 믿음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음에서 나며,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뿌리가 내리며, 성도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며, 결실을 맺게 된다.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엡2:8-9)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1:17)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

려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21:21, 22)

○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10:17)

8. 기도의 사람은 밭에서 신을 벗은 사람이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밭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臨在)해 계신 땅이므로 거룩하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을 경외(敬畏)하는 뜻에서 신을 벗으라는 곳이다. 세상의 모든 땅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저주를 받아(창3:17) 세상에 거룩한 땅은 없다.

성경에서 신을 벗고 사는 자는 종이나 노예나 죄인이나 포로들이다(눅15:22, 사20:2-5).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죄인은 노예와 같은 신분이다. 노예는 인격이 없는 주인의 소유물이다. 신을 벗은 노예는 사람이 아니므로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주장을 말할 수 없다. 다만 주인의 생각과 방법과 결정과 뜻에 절대 순종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주장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할 때에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나,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의 생각이나 모세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했으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여호수아나 다른 사람들의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이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의 밭에서 신을 벗은 사람이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먼저 내 마음 속의 밭에서 신을 벗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여야 한다.

“내 밭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신을 벗고 기도할 때에 가장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신을 벗은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여리고성의 함락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다.

내 밭에서 신을 벗는다는 뜻은

- 1)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고 경외하며, 믿고 섬긴다는 뜻이다.
- 2)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겸비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뜻이다.

- 3) 나는 죄인임으로 노예와 같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법을 주장하지 않고, 다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뜻이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과 방법은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감히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흥해를 걸어서 건너가며,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흥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고전10:1-4)를 먹으리라고 생각했는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되,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羊角)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며, 제 칠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소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릴 때에,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고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차원(次元)에서 역사(役事)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며, 사랑이시다(요일4:8, 16). 또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롬8:32).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밭에서 신을 벗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밭에서 신을 벗으라(출3:4-5, 행7:30-33)

○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쳤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여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밭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수5:13-15)

○ 앗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베를 끄르고 네 밭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밭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밭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

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앗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 할 것이라 (사20:1-5)

○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립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립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렘39:5-7)

9.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5-17) (개역)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5-17) (개역개정)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NIV)

창2:15 말씀을, 영어성경(NIV)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을 “개역”에는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로, “개역개정”에서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로 되어있다.

필자는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개역)를 가지고 생각하고자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땅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비손강, 기흔강, 헛례겔강, 유브라데강의 네 근원이 되었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베렐리엄과 호마노도 있는 아름다운 땅이었다. 아담을 이 아름다운 동산에 이끌어 오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하신다.

1) 아담은 이 아름답고 정돈된 동산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나?

이때에는 동물들의 식물(food, 먹을거리)은 모두 식물(evergreen plant)이었으므로, 동물들은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따라서 동물들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 에덴동산에는 아담 혼자 살았기 때문에 아직 이브도 가족도 없었다. 따라서 지킨다면 아담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 아담은 과연 자신의 무엇을 지켜야 할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내용을 살펴보자.

- (1)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1:26-27)
- (2)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2:7)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게 하셨다.

- (1) 하나님의 형상 (God's Image) : 거룩, 거룩, 거룩 (Holy, Holy, Holy)
 - (2) 하나님의 모양(God's Likeness) : 사랑 (Agape)
 - (3) 하나님의 생기(God's Breath of Life) : 성령 (Holy Spirit, 루아흐)

가) 하나님의 형상(God's Image)은 어떤 것인가?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 너무나 거룩하고 존엄해서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글로 나타내지 못하고, 앉으신 분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로 부터", "보좌 앞에" 등 보좌만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 거룩 거룩(Holy, Holy, Holy)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Holy)함으로 아담을 만드셨다.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Holy)함을 지켜야 한다.

○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바 처음에 내게 말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계4:1-3)

○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자라(계4:8)

나) 하나님의 모양(God's Likeness)은 어떤 것인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4:8),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4:16). 하나님은 사랑(Agape) 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인 사랑(Agape)으로 아담을 만드셨다.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Agape)을 지켜야 한다.

다) 하나님의 생기(God's Breath of life)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Spirit)를 넣어 주셨다. 요4:24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생기는 거룩한 영(Holy Spirit)을 뜻한다.

하나님은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인 거룩한 영을 불어 넣어 주셨다.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과 하나님의 모양인 아가폐 사랑과 하나님의 생기인 거룩한 영을 지키라고 명령하신다.

2) 아담은 이 아름답고 정돈된 동산에서 무엇을 다스려야 하나?

이 동산 안에는 아담 혼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아담이 다스려야 할 것은 네 가지가 있다.

(1)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다.

○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

○ God blessed them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the birds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on the ground." (NIV)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실 때에는 “rule over”(지배, 통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는 의미이다. 동식물을 다스릴 때에는 지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다스릴 때에는 지배나 통치하는 것(to rule over)이 아니고, “섬겨야 한다(to serve)”고 말씀하셨다. 동식물은 지배하고, 사람은 섬겨야 한다.

○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

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7-28, 막10:44-45)고 하셨다.

O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your slave--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NIV)

(2) 죄를 다스리라고 하신다.

O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낮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창4:6-7)

O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y are you angry? Why is your face down-cast?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But if you do not do what is right,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master it." (NIV)

"죄를 다스리라" 하실 때에는 "You must master it."으로 되어있다. 이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주인이 되라, 죄를 이기라, 죄를 극복하라, 죄를 정복하라는 뜻이다.

(3)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신다.

O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렘 17:9)

O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

O Better a patient man than a warrior, a man who controls his temper than one who takes a city. (NIV)

"마음을 다스리라" 할 때에는, "Who controls his temper."로 이는 자기의 기분, 성질, 화내는 것을 절제하라는 뜻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절제(Self-control)의 은사를 받아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다(갈5:23).

(4) 자기 집을 다스리라고 하신다.

O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 보리요(딤전3:4-5)

O He must manage his own family well and see that his children obey him with proper respect. (If anyone does not know how to manage his own family, how can he take care of God's church? (NIV)

"자기 집(가족)을 잘 다스리라" 할 때에는 "He must manage his own family."로 "Manage"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관리하다, 경영하다, 통솔하다, 잘다루다, 잘돌

본다는 의미이다.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며 대표임으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며, 겸손히 이웃을 섬기며, 죄를 정복하며,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며,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한다.

3)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1)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선악(善惡)을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이 세상에는 상대적 선은 있어도 절대적 선은 없다. 절대적 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창조주 하나님만 선(善)하시고, 하나님만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길(道)이시고 사랑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한분만 선(善)과 악(惡)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선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악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다. 사람이 선(善)과 빛과 생명과 진리와 길(道)과 사랑을 원(願)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된다. 사람이 선(善)과 빛과 생명과 진리와 길(道)과 사랑에 관하여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된다. 세상에는 절대적 선, 빛, 생명, 진리, 길, 사랑(agape)은 없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므로,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선과 악 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빛과 다른 생명과 다른 진리와 다른 길(道)과 다른 사랑을 따라가는 것은 혀되고 거짓되고 잘못된 죄(罪)와 악(惡)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2)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아담을 사랑하사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다(창1:26-27, 2:7).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다스리도록 하셨으며(창1:28),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아담이 그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창2:19-20). 일반적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그 이름의 주인이다. 이제 에덴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 사이에는 모든 소유와 권한이 거의 같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인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2:16-17)하시고, 피조물인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셨다.

10. 기도의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여야 한다.

“예수님을 보고 기도하라”는 말은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현실”을 보고 기도한다. 기도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여야 한다.

○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2)

1) 왕상18장의 엘리야

왕상18:1에서, 많은 날이 지나고 제 삼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다.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응답을 받았다.

- (1)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아합에게 보이며,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였다(왕상18:18-19).
- (2)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믿음으로 대결하였다.
- (3) 엘리야는 850명의 숫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승리한 후에 저들을 기순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였다.
- (4) 엘리야는 다시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 (5)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말씀을 믿었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므로 승리하였다(왕상18:41-46).

2) 왕상19장의 엘리야

왕상19:1-3에서,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 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 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광야를 지나 호렙산까지 도망하게 된다.

- (1) 왕상19장에서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 (2) 왕상19장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 (3) 왕상19:2-3에서,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과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 (4) 왕상18장의 믿음의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 엘리야가 왜 갑자기 연약한 엘리야가 되었을까?
- (5) 왕상18장에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엘리야는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였지만, 왕상19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과 “그 형편을 보고” 낙심하였다.
- 가) 나는 지금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 형편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광야를 거쳐 호렙산까지 도망하는 연약한 엘리야가 되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야 한다.

3) 베드로의 경우

제자들이 탄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10시)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마14:24-32).

- (1)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빠지지 않았다.
(3) 그러나 베드로가 의심이 생겨서 아래를 보니, 깜깜해서 물은 안보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의심이 생겨서 바다(현실)를 볼 때에 물에 빠졌다.
(4) 베드로는 물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질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올리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을 때에는 빠지지 않았으나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다(현실)를 바라 볼 때에는 물에 빠졌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구할 때에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이나 현재의 상황을 보고 의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리랑 찬송가

우리나라 민요

작사 김정복 목사

하 - 나 님 - 아 - 벼 지 - 사 랑 -- 해 - 요 - - - -
 예 - 수 님 - 예 - 수 님 - 사 랑 -- 해 - 요 - - - -
 성 - 령 님 - 성 - 령 님 - 사 랑 -- 해 - 요 - - - -
 할 - 렐 루 - 할 - 렐 루 - 할 렐 -- 루 - 야 - - - -

하 - 나 님 - 아 - 벼 - 지 - 고 - 마 워 요 -
 예 - 수 님 - 예 - 수 - 님 - 고 - 마 워 요 -
 성 - 령 님 - 성 - 령 - 님 - 고 - 마 워 요 -
 할 - 렐 루 - 할 - 렐 - 루 - 할 - 렐 루 야 -

나 - 를 위 하 여 독 생 자 주 - 신 - - - -
 나 - 를 위 하 여 십 자 가 지 - 신 - - - -
 나 - 를 위 하 여 기 도 하 시 - 는 - - - -
 할 - 렐 루 - 야 할 레 근 루 - 야 - - - -

하 - 나 님 - 아 - 벼 - 지 - 감 - 사 해 요 -
 예 - 수 님 - 예 - 수 - 님 - 감 - 사 해 요 -
 성 - 령 님 - 성 - 령 - 님 - 감 - 사 해 요 -
 할 - 렐 루 - 할 - 렐 - 루 - 할 - 렐 루 야 -



기도하시는 예수님

**WMC 국제기도학교
WMC School of Prayer Int'l**

Rev. Chung Bok Kim

Professor of Prayerology - 기도학 교수

11521 Oakford Ln., Northridge, CA 91326

(818) 765-7517(H) • (213) 500-0962(Cell)

www.wmcprayer.org • wmcprayer@gmail.com